대 한 국 제 법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 회원님

제목 : 박병도 학회장 퇴임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퇴임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회원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법이 그 규범적 역할과 존재를 동시에 시험받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유구한 역사와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학회는 국제법의 학문적 정체성과 공공재로서 책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회는 국제법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학술대회를 13차례(독도센터 2회, 일본국제법학회의 연구대회에 한일 공동세션 참가 포함) 개최하면서 학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였습니다. 제가 회장 취임사에서 밝힌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H. Grotius**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였습니다. 근대 국제법의 기초를 정립한 그로티우스의 사상이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전쟁·평화·주권·인도주의라는 고전적 주제가 현대 국제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근대 국제법의 역사적 뿌리와 현대적 변용을 연결하는 학문적 성찰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국제법적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국제법학자대회에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여 **『UN 창설 80주년,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국제법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특히 UN체제에서 국제법의 발전과 한국의 기여에 대하여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UN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다자주의의 미래와 국제법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가치가 오늘날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국제법이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학문적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학회는 서울국제법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제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제도적 여건 속에서 논의를 충분히 확장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기술 발전의 속도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국제법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학술적 성과는 회장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학회 임원진과 각 분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학문적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해 1년 동안 학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집행부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병천 수석부회장, 권현호 부회장과 서원상 부회장, 김병준 총무이사, 이주형 연구이사, 김경우 출판이사, 이혜영 국제이사, 이동은 학술이사, 서영민 기획이사, 그리고 전서진 사무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이름으로 이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학회의 살림에 보탬을 주신 기부자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법학계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외교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들 기관의 지원은 학회의 학술대회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단순한 학문 공동체를 넘어, 국제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법적 과제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문공동체로 한국에서 국제법 연구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지만, 대한국제법학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과 국제법 연구의 진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소병천 신임회장 집행부가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연구 사업과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적극 응원하며 훌륭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국제법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평강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 1. 3.

대한국제법학회 제52대 회장 박병도